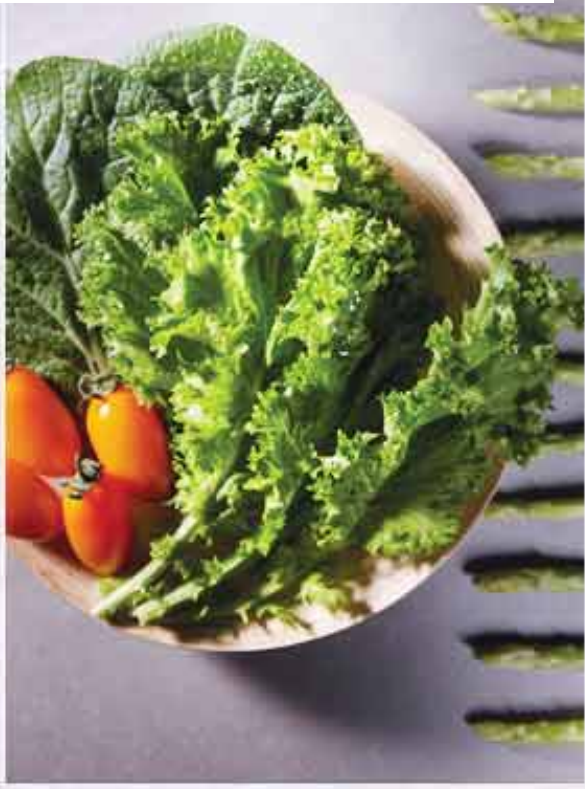


순천 '로컬 푸드 운동' 진화

순천의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유통 구조를 개선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민이 직접 텃밭을 일궈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인근의 농지에서 생산·유통되던 구조를 더욱 단순화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줄이고, 소비자는 더욱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농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며, 도심속 전원생활을 만끽하는 소중한 계기도 만들었다.



**이동거리·시간 확 줄여 공급
올초 전담팀 신설 단계별 육성
전문가 키우고 프로그램 개발
연내 농업인 1500명 참여 목표**

**매주 토요일엔 직거래 장터
밥상꾸러미 시범사업도 인기**

◇로컬푸드 전문가 양성=순천시의 로컬푸드 운동이 진화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철저한 준비 덕분이다. 순천시는 오는 8월까지 로컬푸드 생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순회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로컬푸드 생산자 등 교육계획'에 따라 올해 1500명의 로컬푸드 사업 참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는 기본과정이다.

순회교육은 총 30회의 일정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로컬푸드의 이해와 농가의 역할, 선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농가별 재배 품목, 면적, 직매장 출하시 공급가능 품목 등 로컬푸드 생산자 기초조사를 겸해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 농업인 육성 및 조직이 우선이며, 추후 생산능가 리더 심화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순천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15명, 내부인사 5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박석규 순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외부인사는 순천시의회 의원, 순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과장,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 로컬푸드 전문가 등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순천시의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각종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담팀 구성, 유통 혁신=로컬푸드의 성공 전략 중 핵심은 유통 구조다. 흔히,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근의 농산물이 제때 공급될 수 있는 유통구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지난 1월 '로컬푸드 전담팀'을 신설, 도·농 통합도시 특성을 살린 로컬푸드 육성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순

회교육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로컬푸드 유통·판매방식에는 ▲직거래 장터 ▲밥상꾸러미 ▲전문 판매장인 직매장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순천시는 로컬푸드 유통 판매를 위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 매주 토요일 조례 호수공원, 매주 금요일 도사동사무소 광장 등에서 열고 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계약, 보통 주회 정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밥상꾸러미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인 직매장은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화·교육 및 생산기반 구축 등 여건이 조성되면 농가식당 등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향후 로컬푸드 사업과 농촌체험 관광을 결합하는 로컬푸드 6차 산업화를 통해 희망찬 농업·활기찬 농촌·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예정열·김은종기자 jyj@

HEALTH



삼산동 김장배추 텃밭



एको텃밭 개장식



상자텃밭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순천 만든다

순천시, 대대적 금연 캠페인

순천시가 범시민적인 금연홍보와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순천' 구현에 발 벗고 나선다. 순천시는 3일 시 전역에서 순천시청, 순천대, 청암대 직원과 해병전우회원, 금연단속 요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학 연계 금연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참여자들은 순천대학, 순천의료원, 버스터미널, 에코그라드 호텔, 장대공원 등 5개소에서 10명 1개 조로 팀을 나눠 ▲금연구역을 지켜주세요 ▲금연

은 자신과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등 문구가 쓰인 금연홍보물을 나눠준다. 민·관·학 연계 금연사업은 분기당 1회 실시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 3일과 12월 3일 열릴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과 시민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 금연사업을 추진,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해창 용출다리기 마을 '논 풀장' 개장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순천시 해룡면 해창리 용출다리기 마을이 1일 논에서 뒹굴며 각종 놀이를 즐기는 '논 풀장'을 개장했다. '논 풀장'은 길이 30~40cm·넓이 4500㎡(1500평) 규모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200여명이 미니 보트를 즐기고 머드축구와 황토 미끄럼틀 등 여러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민들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으로 논을 임대해 지난 4월부터 이색적인 논 풀장을 준비했다. 또 체험객 편의를 위해 차광막으로 만들어진 그늘집터와 시원한 지하수를 이용

한 샤워장, 이동식 화장실 등을 갖췄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생 등 단체 체험객들 체험시간에는 해룡파출소 안전지도 지원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안전요원으로 자원봉사에 나선다. 체험료는 5000원이고,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마을 부녀회에서 미리 주문하는 체험객들에게 식사도 함께 제공한다. 문의(061-723-6112) 한편 순천시 해창 용출다리기마을은 도시민들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됐다. /순천=예정열기자 jyj@

청암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순천 청암대학교(총장 강명운)가 최근 교육부 주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집중 육성 사업'으로, 전국에서 전문대학 70개교가 특성화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청암대의 특성화 사업명은 '산·학·밀착형 간호 보건 복지 분야 융·복합형 전문인력 양성'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꿈'이라는 핵심가치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직업 인력 양성'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150억~17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학생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국 전문대학 육성사업에는 5년간 1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강명운 총장은 "이번 특성화 사업 선정으로 청암대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 직업인 양성과 글로벌 인재양성 선도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최상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No.1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유대복상사|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